하나님과 사이(間)좋게 지내기

(이사야 48:1~22)

1.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3.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4.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
5.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이(間)좋게 지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間)좋게 지내기'

티벳의 수도승 아나가리카 고빈다(Anagarika Govinda)가 "산의 위대함은 거리를 두어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산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산의 위대함을 마음으로 인정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사이가 좋다고 할 때에 사이는 관계를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한자로는 사이 간(間)자를 써서 간격(間隔)이라고 합니다. 즉 사이가 좋다는 것은 간격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그녀의 사이가 좋다는 말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둘 사이의 거리가 좋다는 것이고 알맞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깝다고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져서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서 결혼을 했지만 이혼해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격 없는 상태를 속된 말로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는 찰떡궁합이 존재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자로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을 씁니다. 사람은 반드시 간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간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알맞은 간격이 있을 때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간격이 없을수록 좋은 관계는 없을까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인간되심과 신 되심이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이 밀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반대로 인간을 비롯한 이 피조세계 안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돈과 사람 사이에도 간격은 필요합니다. 마음이 돈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때에 사이가 나빠집니다. 돈과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이가 좋다는 것은 내가 상대하는 대상에 따라 알맞은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내가 상대하는 모든 대상들은 알맞은 간격을 가질 때에 사이가 좋아집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간격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비롯하여 모든 대상들과 합당한 간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래 뜻은 가까이할 수도 멀리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너무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지 말라는 권고의 말로써 사용됩니다만 신앙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처세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신앙인은 이러한 처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해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면 사람이나 사물들과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과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알맞을 때에 피조물들과의 간격도 알맞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간격이 없는 상태가 최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여러 대상과 밀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대상과만 밀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들과는 간격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간격 없이 사이가 좋은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돌로 치는 자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질 때에 원수에게조차 최선의 사이로 유지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돈 건강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장 알맞은 간격을 유지하게 되고 사이가 좋게 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선민으로써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가장 큰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은 지켜집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과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간격이 없을수록 좋은 유일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것은 간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실과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단순히 솔직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마주하고 있을 때에 진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거짓된 존재이기에 진실하게 드러내도 나의 거짓됨만이 표현될 뿐입니다. 진실은 단순한 솔직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의는 내가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좋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대상들과도 사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주변의 대상들과 사이좋게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향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패역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간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없어져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세상의 대상들과 간격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간격이 유지되지 못하기에 세상과도 사이가 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향을 아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선민들은 2절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성전을 이용하기는 했습니다.
사람이 간격 없이 관계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이가 좋

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돈과의 거리를 없애면 돈과 사이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과의 알맞은 간격이 아니기에 돈과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평생 돈과 사이가 틀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그러합니다. 간격이 있어야 할 대상들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간격을 없애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상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함께 죽이라고 성전이 허락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의 존재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는 선민들이 완고하게 세상을 추구하였습니다. 세상과 붙어버린 마음 상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를 더 견고하게 하고자 성전의 번제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우상시하게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 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영적으로 남 유다가 이미 멸망 상태였음을 이사야는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세상과의 모든 관계도 틀어졌고 이것이 곧 멸망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형태는 남아있을지라도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끝장난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남 왕국 유다는 이미 선민의 특권을 잃어버린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는 다른 것들에 마음이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죽은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의 상번제였으나 그것이 진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 나타나는 결과가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밀착시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세상에 마음을 밀착시킨 결과 세상과의 사이도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려면 하나님과 밀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2절을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친숙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의지함에 대한 오해를 깨뜨려야합니다. 마음에 사업을 담고 있으면 사업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과 가져야할 합당한 거리가 아니기에 오히려 사업과의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사업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할수록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업과 더 밀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께서 봉사하라니까 주차장에 나가서 교통봉사도 합니다. 마음은 오직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이는 안 좋고 사업과의 사이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시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특성은 나의 주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하겠다는 나의 주체적인 결단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중에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과 사이는 더 안 좋아지고 사업과의 사이도 더 나쁘게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업하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사업과 밀착된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사업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가치와 내 마음이 밀착된 상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들여놓은 마음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자녀를 마음에 들여놓은 것부터 이미 자녀와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들여놓은 마음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 것들과 사이가 잘못된 마음상태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내신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내 마음이 밀착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마음에서 거리를 두게 된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모든 대상들과 합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사이가 좋아집니다.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곧 혼돈이 사라진 질서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자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고 탄식하실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에서 깊이 생각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 밀착해 들어온 대상입니다.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잃게 하는 이유는 그것과의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어지고 사이가 좋아지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사이가 좋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치는 자들과 가장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장 알맞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마귀와 합당한 사이는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두는 것이야 말로 아주 좋은 사이입니다. 이렇게 모든 대상에 대해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세상의 피조물들이 달라붙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밀착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대상들과도 가장 적절한 좋은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